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Sharma 등은 갈락토스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를 poly-3-hexylthiophene와stearicacid와함께indiumtin-oxide(ITO)기판위에 Langmuir-Bloggett (LB) 박막 제조법을 활용하여 고정한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우유 속에 존재하는 갈락토스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22]. 이러한 바이오센서 디자인은 바이오센서의 보존 기간을 9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더욱이 바이오센서의 감응시간(response time)이 5.6-22.2 mM 농도 범위에서 60초로 매우 우수하였다.

- 중략 -

이에 본 연구에서는 Sung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형광 바이오센서에서 GalOx효소를polyethyleneglycol(PEG)과polyanion을이용하여광섬유 표면에고정한연구에서제시한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GalOx효소를유리질 탄소(glassycarbon:GC)전극위에고정한갈락토스바이오센서를제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인간의 혈액시료 분석에 응용하고자 한다 [25].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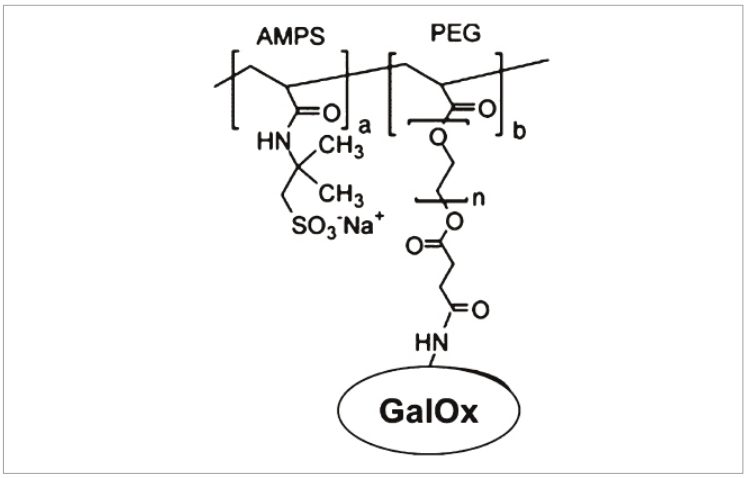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GalOx immobilization on GC electrode surface (Reprinted from [25]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참고 문헌 [25] W.J. Sung, Y.H. Bae, Sensors Actuators B Chem. 114 (2006) 164-169.

참조

이공계 분야에서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전망을 소개하는 리뷰(review)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소개할 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의 논문에 출판된 그림, 표(table), 그래프(graph) 등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해당 연구를 소개하면 가독성이 높아져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할 수 있음. 반드시 원저자 및 해당 출판사에 해당 데이터 사용에 관한 저작권 허가를 받은 후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자신의 학위 논문으로 발표할 때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는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한 타인의 학술적 기여 부분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임.
- 최근 이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학위 과정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 논문으로 작성할 때,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 논문의 한 저자인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음.[27] 만약 학위논문에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나 텍스트를 조금이라도 활용한다면, 당사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적절하게 인용표시를 해야 함.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문사회, 이·공학 및 의학 분야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unpublished master's thesis 혹은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으로 명기되어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학위 논문을 하나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 업적 인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 논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음.
- 대학에 따라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동료 심사제도가 있는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학위 수여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학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조차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 중 일부 분야에서는 학위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으로 간주하여 이를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중복게재로 판정하기도 함.

27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7.

- 또한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분야도 있음.
- 학위 논문의 중복게재 여부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관행과 규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2. 실험 및 방법

2.1. 금나노클서스터의 제조

글루타치온[SG]으로 안정화된 Au22 금나노클러스터(AuNCs) [Au22(SG)18], 글루타치온으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SG)18], 그리고 (3-mercaptopropyl) sulfonate (MPS)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MPS)18]는 이전에 출판된 여러 연구진들의 합성법에 기반하여 제조하였다 [32-34]. 소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으로 안정화된 AuNCs [Au@BSA]는 이전에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합성하였다[35].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2. 실험 및 방법

2.1. 금나노클서스터의 제조

글루타치온[SG]으로 안정화된 Au22 금나노클러스터(AuNCs) [Au22(SG)18], 글루타치온으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SG)18], 그리고 (3-mercaptopropyl) sulfonate (MPS)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MPS)18]는 이전에 출판된 여러 연구진들의 합성법을 수정하여 제조하였다 [32-34]. 소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으로 안정화된 AuNCs [Au@BSA]는 이전에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글루타치온으로 안정화된 금나노클러스터(AuNCs)들의 합성과 분석은 한국대학교 화학과 나노화학 연구실 표철수 학생에 의해 수행되었다.

– 중략 –

참고 문헌

[1] 본 논문의 제3장 연구 내용은 이전에 출판된 아래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음. [J. Kim, K. Pyo, D. Lee, W.-Y Lee, Near-infrared electrogenerated chemiluminescence of Au22(glutathione)18 nanoclusters in aqueous solution and its analytical application, 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는 연구자가 타인이 쓴 영문 논문의 한 어절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표절의 유형 중 하나임.
- 연구자는 타인이 외국어로 쓴 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번역한 후 말바꿔쓰기와 요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활용한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고유한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 아무리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도 반드시 원전의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는 직접인용 방식처럼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번역한 후 이를 다시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한 경우는 간접 인용의 방식처럼 인용부호 없이 출처표기를 해야 함.
-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원전의 출처를 밝혀주어야 하며, 원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지 말고 핵심 사항만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저작물

타인의 논문(Microchim Acta 184 (2017) 3663-3671)

This review has highlighted some of the novel approaches that have been employed for fabricating amperometric galactose biosensors. The analyti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se galactose biosensors are summarized in Table 1.

The use of GalOx offers an additional advantage over galactose dehydrogenase (GADH), as the latter requires cofactors to be co-immobilized onto the underlying transducer. In addition to this, the response times are generally shorter for GalOx based biosensors. Consequently, only one paper reported the use of GADH in its

design. However, there are several drawbac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GalOx-based biosensors. Significantly higher applied potentials must be used in order to generate an electrochemical response from the enzyme generated H_2O_2.

부적절한 인용 예시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구조체인 그래핀에 기반한 고감도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인간의 혈액 분석에 활용하였다. 갈락토스 바이오센서 제작에서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를 사용하는 것은 갈락토스 탈수소효소(galactose dehydrogenase, GADH)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장점이 있는데, 이는 GADH 기반 바이오센서의 경우는 변환기 상부에 조효소(cofactor)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GalOx 기반한 바이오센서의 감응 시간이 GADH 기반 바이오센서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 GalOx 기반한 바이오센서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된 H_2O_2로부터 전기화학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높은 전압을 가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GalOx효소를 탄소나노구조체인 그래핀과 sol-gel titania-Nafion 복합막에 포함시켜 백금 나노입자를 고정한 GC 전극에 고정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래핀과 백금 나노입자가 효소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효과가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titania-Nafion 복합막이 나노나공성 구조를 가져 물질의 이동이 매우 빨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는 2초 이내의 빠른 감응속도와 40.6 $mAM^{-1}cm^{-2}$의 매우 높은 감도, 그리고 3.78×10^{-6} M (S/N=3)의 매우 낮은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체친화적인 titania-Nafion 복합막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의 장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구조체인 그래핀에 기반한 고감도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인간의 혈액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에 기반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는 갈락토스 탈수소효소(galactose dehydrogenase, GADH)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변환기 상부에 조효소(cofactor)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이 간편하고 감응속도가 빠르지만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된 H_2O_2로부터 전기화학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높은 전압을 가해야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GalOx효소를 탄소나노구조체인 그래핀과 sol-gel titania-Nafion 복합막에 포함시켜 백금 나노입자를 고정한 GC 전극에 고정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래핀과 백금 나노입자가 효소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효과가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titania-Nafion 복합막이 나노나공성 구조를 가져 물질의 이동이 매우 빨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는 2초 이내의 빠른 감응속도와 40.6 $mAM^{-1}cm^{-2}$의 매우 높은 감도, 그리고 3.78 × 10^{-6} M (S/N=3)의 매우 낮은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체친화적인 titania-Nafion 복합막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의 장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 중략 –

참고 문헌

[1] P. Kanyong, F. D. Krampa, Y. Aniweh, G. A. Awandare, Microchim Acta 184 (2017) 3663-3671.

3.3. 연구보고서

근거가 되는 자료의 인용을 누락한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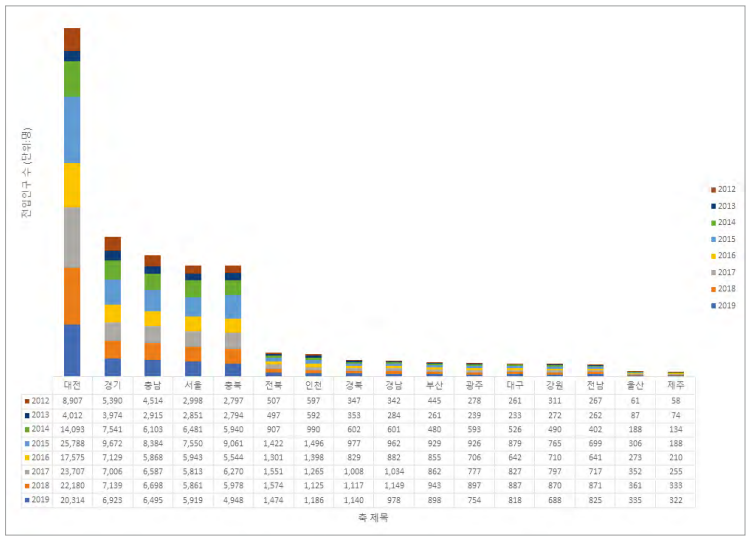
- 본 사례는 세종시의 개관을 설명하고 있음. 부적절한 인용 예시에서는 세종시의 일반 현황을 소개하면서 인구 37만 명, 성장률 300%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표기가 없어 부적절한 인용표기 사례로 제시되었음.
- 인구 규모, GDP, GRDP 등의 자료를 제시할 때 출처표기에 유의해야 함. 보고 쓴 내용이라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한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온라인 자료는 갱신, 삭제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저장이 되는 아카이브가 아닌 이상 검색일을 밝히는 것이 좋음. APA 7판에서는 온라인 자료가 아카이브되어 있다면 검색일은 필요하지 않으나, 아카이브 버전에 대한 링크가 영구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입력자료 URL과 검색일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APA, 2020:455, 461).

부적절한 인용 예시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 2022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세종시의 현재를 분석해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인구 약 11만명으로 출범한 도시이다. 2021년 12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약 37만으로 300%이상의 인구 성장을 이룩한 도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세종이 발전해 온 모습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제정 20. 11. 29.)이 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하면서세종특별자치시의법적지위와관할구역등이 확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시로 규정되었고,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기존 농촌 지역이었던 곳에 새롭게 출범된 도시로, 행복도시 젊은 층의 인구는 타 도시에서 진입한 인구가 90%이상으로, 주로 대전과 수도권에서 이주하여 왔다.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세종시로 유입된 전 주거지는 대전, 경기, 충남, 서울, 충북 순이었다. 또한, 해당기간 유입인구의 합계를 통해 살펴보면 유입인구 총 385,189명 중 84.5%인 325,662명이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경기	충남	서울	충북	전북	인천	경북	경남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전남	울산	제주
2012	8,907	5,390	4,514	2,998	2,797	507	597	347	342	445	278	261	311	267	61	58
2013	4,012	3,974	2,915	2,851	2,794	497	592	353	284	261	239	233	272	262	87	74
2014	14,093	7,541	6,103	6,481	5,940	907	990	602	601	480	593	526	490	402	188	134
2015	25,788	9,672	8,384	7,550	9,061	1,422	1,496	977	962	929	926	879	765	699	306	188
2016	17,575	7,129	5,868	5,943	5,544	1,301	1,398	829	882	855	706	642	710	641	273	210
2017	23,707	7,006	6,587	5,813	6,270	1,551	1,265	1,008	1,034	862	777	827	797	717	352	255
2018	22,180	7,139	6,698	5,861	5,978	1,574	1,125	1,117	1,149	943	897	887	870	871	361	333
2019	20,314	6,923	6,495	5,919	4,948	1,474	1,186	1,140	978	898	754	818	688	825	335	322

〈그림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의 연도별 유입지역 현황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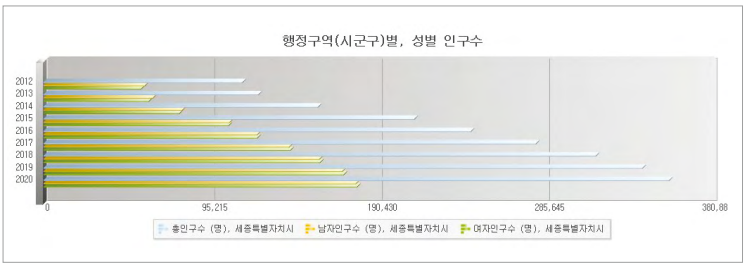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 2022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세종시의 현재를 분석해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인구 약 11만명으로 출범한 도시이다(행정안전부, 2012~2021). 2021년 12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약 37만으로 300%이상의 인구 성장을 이룩한 도시이다〈그림1〉.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세종이 발전해 온 모습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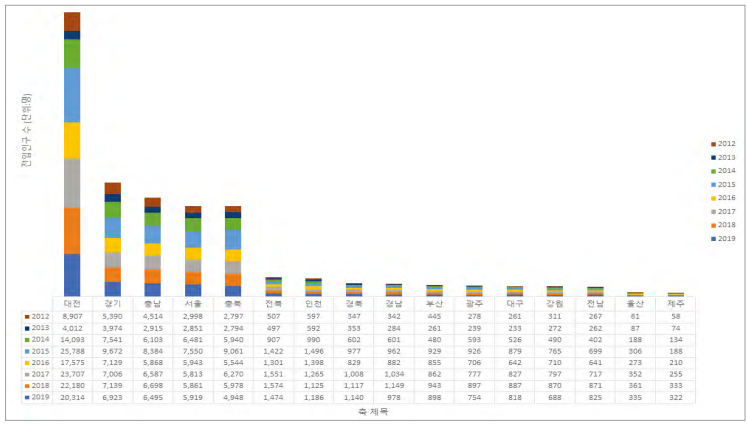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제정 20. 11. 29.)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이 확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시로 규정되었고,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기존 농촌 지역이었던 곳에 새롭게 출범된 도시로, 행복도시 젊은 층의 인구는 타 도시에서 진입한 인구가 90%이상으로, 주로 대전과 수도권에서 이주하여 왔다.

세종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 현황(세종특별자치시, 2012~2020)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세종시로 유입된 전 주거지는 대전, 경기, 충남, 서울, 충북 순이었다. 또한, 해당기간 유입인구의 합계를 통해 살펴보면 유입인구 총 385,189명 중 84.5%인 325,662명이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세종시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1. 12. 6.갱신),「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접속일: 2021. 12. 12.)



〈그림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의 연도별 유입지역 현황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세종←타시도), 2012~2020, https://www.sejong.go.kr/stat/stats/form.do?key=1910168795224#none (접속일: 2021. 12. 12.)

참고문헌

행정안전부(2021. 12. 6. 갱신)「주민등록인구현황」2012~2020,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접속일: 2021. 12. 12.)

세종특별자치시(2020)「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세종←타시도), 2012~2020, https://www.sejong.go.kr/stat/stats/form.do?key=1910168795224#none (접속일: 2021. 12. 12.)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2~2021). (행정안전부, 2012~2021).	행정안전부, 2021. 12. 6.갱신,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행정안전부(2021. 12. 6.갱신)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접속일: 2021. 12. 12.)
세종특별자치시 (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 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 (세종←타시도), 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세종←타시도), 2012~2020, https://www.sejong.go.kr/stat/stats/form.do?key=1910168795224#none (접속일:2021.12.12.)

연구보고서 인용 시 세부 사항을 누락한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회색문헌의 정의 및 관련 연구 동향을 설명하는 자료임.
- 파란색 문장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의 문헌을 인용하고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인용한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고 제시하였음. 특정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 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록색 문장은 조현양(2008)의 논문 일부 페이지의 내용을 간접인용한 부분으로, 저널의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페이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논문 일부 내용을 간접인용한 경우는 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라색 문장은 국내외에서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잘 알려진 위키디피아와 국내에서 잘 알려진 나무위키에서 검색한 내용을 인용한 사례임. 위키피디아 등의 온라인 백과사전은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2차 문헌이기 때문에 검색 내용을 연구논문 등에 사용하기 전에 인용자료로서 내용이 적절한지, 혹시 보다 신뢰할만한 1차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책임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함.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2차 자료보다는 1차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28] 위키피디아 등의 온라인 백과사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APA 양식은 "제목(검색항목)", 작성연월일, 위키피디아, URL 순으로 표기함.
- 참고로 위키피디아(위키백과)에서는 "이 문서 인용하기"를 제공하여 APA 양식, MLA 양식, MHRA 양식, 시카고 양식, CBE/CSE 양식, 블루북 양식, BibTeX 기록 등 7가지 인용표기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2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2) Wikipedia entry references, https://apastyle.apa.org/style-grammar-guidelines/references/examples/wikipedia-references (접속일: 2021. 12. 18.)

〈 APA 양식 〉

양식	내용주	참고문헌
제목.(연월일), 위키백과. URL Article title. (Year, Month Day). In Wikipedia. URL	“Korea” (2021) (“Korea,” 2021)	Korea(12 December 2021).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Special:CiteThisPage&page=Korea&id=1060005868&wpFormIdentifier=titleform

〈MLA 양식〉

양식	내용주	참고문헌
제목.(연월일), 위키백과. URL. 발행처. 최근 수정일.URL “Article Title.”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date of last modification, URL.	“Korea”	“Korea.”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12 December 2021,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Special:CiteThisPage&page=Korea&id=1060005868&wpFormIdentifier=titleform

〈시카고 양식〉

양식	내용주	참고문헌
발행처. 연도. 제목. 최근 수정일. URL Wikipedia. Year. “Article Title.” Last modified Date. URL.	Wikipedia(2021) (Wikipedia 2021)	Wikipedia. 2019. “Korea.” Last modified 12 December 2021.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Special:CiteThisPage&page=Korea&id=1060005868&wpFormIdentifier=titleform

- 단어는 KISTI의 김미진·배순자·남영준이 연구한 보고서를 인용한 사례임. 본 사례의 경우 KISTI(2002) 보다는 김미진 외(2002) 또는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보고서를 인용할 때 저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저자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

- 웹사이트상의 웹페이지 이용 시, 저자명과 사이트명이 같은 경우, 사이트명을 생략함(APA, 2020:497)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2) Wikipedia entry references, https://apastyle.apa.org/style-grammar-guidelines/references/examples/wikipedia-references
  (접속일: 2021. 12. 18.)

부적절한 인용 예시

회색문헌(Gray literature) 이란?

보고서에는 정부정책보고서,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많은 종류의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학술논문과 대조되는데, 학술논문은 동료 연구자에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보고서는 동료 연구자로 부터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는 않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학술논문 등은 논문에 대한 특정 형식, 심사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연구자로부터의 동료평가를 받는 반면에 보고서는 학술지가 준수해야 하는 형식이나 심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출간과 배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진다(조현양, 2008).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고 수정되고 있는 백과사전 플랫폼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에서는 “회색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회색 문헌”은 일반적으로 발행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판되는 것이 아닌 문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접근과 열람, 입수에 어려움이 있어 비공식 유통 자료라고도 칭한다. 이는 대외비 자료(black literature)와 백색문헌(white paper)의 사이에 위치한다. 대표적로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 프로시딩, 기술보고서 등을 이 카테고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각 국가에서 바라보는 “회색 문헌”의 의미는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용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 중략 –

2000년대 온라인 자료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회색문헌의 활용이 증가되면서, 회색문헌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다. KISTI(2002)은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회색문헌을 효과적으로 수집·처리·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현양(2008)은 연구자들이 회색문헌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한 학술지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회색문헌의 선호도 살펴봄으로써 학문간 회색문헌에 대한 인용 차이를 밝혀내었다. 이지연(2007)은 연구개발활동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가 어려운 회색문헌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사례, 국내 관련자 실무 면담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 문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65-000
이지연(2007) 국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2), 25-57.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국내외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연구. KISTI. 연구보고서
조현양(2008) 인용 분석을 통한 학문간 회색문헌의 활용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73-294.

참고 사이트

회색문헌(2021.6.24.) 위키피디아, Wikipedia.https://ko.wikipedia.org/wiki/%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회색문헌(Gray literature) 이란?

보고서에는 정부정책보고서,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많은 종류의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학술논문과 대조되는데, 학술논문은 동료 연구자에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보고서는 동료 연구자로 부터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는 않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329). 학술논문 등의 논문에 대한 특정 형식, 심사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연구자로부터의 동료평가를 받는 반면에 보고서[1]는 학술지가 준수해야 하는 형식이나 심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출간과 배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진(조현양, 2008:274). 이런 종류의 자료를 문헌정보학에서는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색문헌에 대한 범위는 이를 정의하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회색 문헌”은 일반적으로 발행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판되는 것이 아닌 문헌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접근과 열람, 입수에 어려움이 있어 비공식 유통 자료라고도 칭한다[3]. 이는 대외비 자료(black literature)와 백색문헌(white paper)의 사이에 위치한다. 대표적로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 프로시딩, 기술보고서 등을 이 카테고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각 국가에서 바라보는 "회색 문헌"의 의미는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을 사용에는 다음과 같이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용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 중략 –

2000년대 온라인 자료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회색문헌의 활용이 증가되면서, 회색문헌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다.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은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회색문헌을 효과적으로 수집·처리·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현양(2008)은 연구자들이 회색문헌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한 학술지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회색문헌의 선호도 살펴봄으로써 학문간 회색문헌에 대한 인용 차이를 밝혀내었다. 이지연(2007)은 연구개발활동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가 어려운 회색문헌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사례, 국내 관련자 실무 면담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주
1) 조현양(2008)은 보고서 대신 회색문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본 글에서는 내용의 흐름상 보고서로 사용하였다.
2) "회색문헌"(2021. 6. 24.) Wikipedia
3)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참고문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65-000
이지연(2007) 국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2), 25-57.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국내외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연구. KISTI. 연구보고서
조현양(2008) 인용 분석을 통한 학문간 회색문헌의 활용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73-294.

참고 사이트

회색문헌(2021. 6. 24.) 위키피디아,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6. 24.) 위키피디아,	회색문헌(2021. 6. 24.) 위키피디아, Wikipedia.https://ko.wikipedia.org/wiki/%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9. 22.) 나무위키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이지연(2007) (이지연, 2007)	이지연(2007)	이지연(2007). 국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2), 25-57.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0)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국내외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연구. KISTI. 연구보고서
조현양(2008) (조현양, 2008)	조현양(2008)	조현양(2008). 인용 분석을 통한 학문간 회색문헌의 활용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73-29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65-000

보도자료 활용 시 상세 정보를 누락한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정부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임.
-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보도자료는 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임. 정부부처 보도자료에는 보도제목, 보도일시, 배포일시가 제시되어 있음. 부처 보도자료를 활용할 경우, 제목, 부처명, 보도일시를 함께 출처표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도자료 URL과 보도자료를 확인한 접속일자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접속일 표기 없이 해당정보의 위치(URL)만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해당 URL이 정보 수정 또는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임.
- 각주 또는 미주와 참고문헌에 서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각주/미주 또는 참고문헌 중에서 둘 중 한 곳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음. 보통 각주/미주에는 간략한 정보를 작성하고, 참고문헌에는 정확한 모든 정보를 작성함.
- 시카고 양식에서는 보도자료 등은 각주/미주에만 인용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참조

• 우리가 매일 접하는 방송뉴스나 신문기사, 보도된 사진자료 등을 인용할 때 저작권에 유념해야 함. 뉴스기사는 언론사의 창작물이며 저작권이 적용된다.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로 보도된 뉴스는 어문저작물이며,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임.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도한 뉴스는 영상 저작물,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은 음악저작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하여 보도한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여 법의 보호를 받음(한국언론진흥재단, 2020:9).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온라인, SNS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용에 해당함. 비영리, 공익 목적일지라도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함.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벗어남(저작권법 제7조).

• 저작권법 제2장 제4절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음의 목적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하고 있음.

첫째, 재판 또는 수사,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를 위한 복제(제23조)

둘째,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제24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장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단, 국가안전보장 정보를 포함하거나, 개인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불가) (제24조2)

넷째,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제25조)

다섯째,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제26조)와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제27조)

여섯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관행으로 인용하는 경우(제28조)

일곱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일곱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제30조)

부적절한 인용 예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는 2021년도 6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표 1〉. 이러한 기준은 1인 가구와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에게는 약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정한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8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다. 혼합 가구의 경우는 26만원까지 가능하다. 가구내 소득원이 2인인 맞벌이 3인 가구는 4인 기준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약 2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기획재정부, 2021. 8. 30)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는 2021년도 6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표1〉. 이러한 기준은 1인 가구와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에게는 약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정한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8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다. 혼합가구의 경우는 26만원까지 가능하다. 가구내 소득원이 2인인 맞벌이 3인 가구는 4인 기준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

라도 고액의 자산(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표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각주 1) 기획재정부(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96&menuNo=4010100 (접속일: 2021. 9. 6.)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1) (기획재정부, 2021)	기획재정부 (2021.8.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96&menuNo=4010100 (접속일: 2021. 9. 6.)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온라인 자료의 인용정보를 기록할 때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함. 본 사례집의 온라인 자료 인용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권고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용방식은 참고자료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온라인 자료에 대한 출처 인용표기에 대한 부분은 영구적인 저장이 되는 URL이 아닌 이상 검색일을 기록해야 함. APA 7판에서는 온라인 자료가 아카이브 되어 있다면 검색일은 필요하지 않으나, 아카이브 버전에 대한 링크가 영구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입력자료 URL과 검색일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APA, 2020:455, 461).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 인용 사례*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는 타인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구성 또는 사실을 재구성한 창작물임. 따라서 강의 자료의 사진을 일부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온라인 강의 자료(강의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29]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용 전에 저작권법상 제한을 꼭 확인하고 저작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허락을 받은 후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튜브 동영상 자료 또는 온라인 강의 자료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저자명(기관명), 게시일, 제목, 접속일, URL, 파일형식(Viedo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영상 클립을 캡처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혹시 활용한 자료가 2차 문헌이라면 가급적 1차 문헌을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며, 2차 문헌만 활용하였다면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함께 표기해야 함.

-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 때, 그 범위가 저작권법 제28조 안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29 KIPACAFE(2020. 6. 24.작성) 온라인 강의, 저작권 주의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pracafe/222011119542 (접속일: 2021. 10. 12)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사이의 주종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보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34).

- 공표된 온라인 영상물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여기에 부연, 예시, 설명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있으나, 자기개발서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주종관계가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이 필요함(오승종, 2020:189).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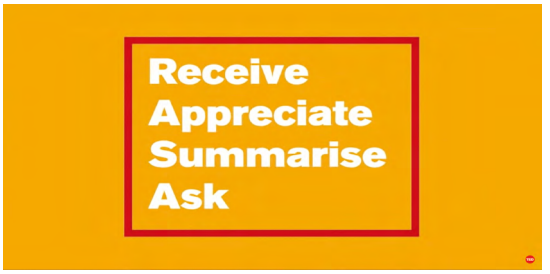
리더와 조직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는 소통을 통해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KIRD, 2021). KIRD(2021)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 즉 전달방법과 전달과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제스츄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경청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쥴리안 트레져의 5가지 잘 듣는 방법 중 RASA를 소개하였다.

〈그림1〉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출처: youtube(2021)

Julian Treasure(2011)은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5 ways to listen better)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묵(Silence)이다. 다시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 3분 정도 침묵을 연습한다. 둘째는 믹서(Mixer)이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을 연습한다.

셋째는 일상소리 즐기기(Savoring)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리를 즐겨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듣기 포지션(Listening position) 연습이다. 능동적으로 들을지, 수동적으로 들을지, 비판적으로 들을지, 공감하며 들을지 등 경청할 때의 포지션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RASA(.Receive, Appreciatiate, Summaries, Ask, 주의-인식-요약-질문)을 의사소통할 때 연습한다.



〈그림2〉 Treasure, J.(2011)의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

출처: youtube(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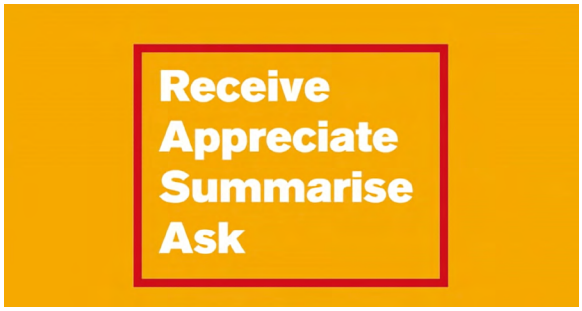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리더와 조직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는 소통을 통해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KIRD, 2021). KIRD(2021)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 즉 전달방법과 전달과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제스츄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경청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쥴리안 트레져의 5가지 잘 듣는 방법 중 RASA를 소개하였다.

〈그림1〉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출처: KIRD 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9. 10.작성) 소통_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한마디 (KIRD 박귀찬_원장님)_1부, https://youtu.be/GYMTEwIHrD8 (접속일: 2021. 10. 31.)

Julian Treasure(2011)은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5 ways to listen better)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묵(Silence)이다. 다시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 3분 정도 침묵을 연습한다. 둘째는 믹서(Mixer)이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을 연습한다. 셋째는 일상소리 즐기기(Savoring)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리를 즐겨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듣기 포지션(Listening position) 연습이다. 능동적으로 들을지, 수동적으로 들을지, 비판적으로 들을지, 공감하며 들을지 등 경청할 때의 포지션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RASA(.Receive, Appreciatiate, Summaries, Ask, 주의-인식-요약-질문)을 의사소통할 때 연습한다.



〈그림2〉 Treasure, J.(2011)의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

출처: Treasure, J.(2011) "5 ways to listen better" https://www.youtube.com/watch?v=cSohjlYQI2A[TedVideo], 6:17:7:50 (접속일: 2022. 1. 16.)

참고 문헌

KIRD 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9. 10.작성) 소통_마음을 움직는 리더의 말 한마디(KIRD 박귀찬_원장님)_1부, https://youtu.be/GYMTEwIHrD8[Viedo] (접속일: 2021. 10. 31.)

TED(2011. 7. 30.) 5 ways to listen better | Julian Treasure https://www.youtube.com/watch?v=bvAEJ8G9l9U&t=232s[Ted Video] (접속일: 2022. 1. 16.)

이미지의 부적절한 인용 사례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고흐의 작품 〈자화상〉과 고흐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는 블로그 등이 활용되어 작성된 사례임.
-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의 많은 이미지를 인용할 때,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또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70), 온라인 유통 이미지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함.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항)'이며, 저작권법에서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및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등이 해당함(동법 제4조4항~8항).
- 본문에 사용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사진은 사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음.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국내사용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국내 법령에 따름(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0.12.).[30)]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상 및 반 고흐에 대해 기술하거나 작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경우는 보고 쓴 글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인 지식(사실)인 경우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일반적 지식(사실)이란 통상적인 일반 지식(역사적 날짜, 역사적 사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이나 객관적 사실에 불과한 정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특정인의 고유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일반적 지식(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표기를 해야 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105).

30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10. 12.작성), 해외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해도 괜찮을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2113637467 (접속일: 2022. 1. 16.)

-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을 유의해야 함. 사진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창작성을 인정받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오승종, 2020:139). SNS에 공개 자료로 올려놓은 이미지인 경우에도 그 인용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과 이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저작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동법 제5조, 제6조). 단,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예외임(동법 제7조).

- 저작권법에 속했던 저작물이라도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동법 제39조). 단,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동법 제50조).

부적절한 인용 예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반 고흐는 일생을 통해 정신적 질환과 근심을 고통으로 겪었으며, 37세의 나이에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사후에야 알려진 반 고흐는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이다.

〈그림1〉 고흐의 자화상